

## 치사

<한국 독립운동과 진관사> 학술세미나를 축하드립니다. 항일독립운동의 성지 진관사에서 발견된 독립운동 사료의 학술적 가치와 백초월 스님의 항일운동을 조명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진관사 주지 계호스님의 원력과 삼각산 역사문화보존회 여러분,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은평구, 독립기념관의 후원으로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 석학들께서 귀중한 논문을 준비해주셨습니다. 학술세미나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서는 띄약별이 내리쬐이는 길가 고목 아래 앉아서 석가족을 침략하던 코살라의 군대를 저지하셨습니다. ‘친족이 없는 것은 그늘이 없는 나무와 마찬가지로’라고 하시며 혈혈단신 침략군을 막아섰던 우리 부처님처럼, 일제강점기 암울했던 시절에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온 몸을 불사르신 자랑스러운 스님들이 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석가모니부처님의 마음을 실천으로 구현하신 자랑스러운 스님들입니다.

지난 5월, 항일운동의 거점사찰 진관사에서 태극기와 항일지하신문 등 독립운동사료가 발견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개산 999주년을 맞이하는 진관사를 축하하는 뜻 깊은 발견이었습니다. 귀중한 항일 독립운동 사료의 발견을 계기로 일제강점기 진관사에 주석하였던 백초월 스님의 항일운동을 재조명하게 되었습니다.

백초월스님은 대중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참으로 큰 공적을 독립운동에 쌓으신 분입니다. 1916년 명진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일제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비밀단체인 한국민단본부를 결성했습니다. 천은사와 화엄사 등에서 군자금을 모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했으며, 혁신공보를 발행하여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신상완스님과 함께 의용승군을 조직하는 등 독립운동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잔악한 고문에 시달리다 마지막 남은 생명까지 아낌없이 조국 독립운동의 제단에 바쳤습니다.

민족이 고난을 받던 시절, 일신의 편안함과 영화를 위해 일제에 아부하던 사람들과 달리 백초월스님은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민족독립을 위해 당신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그 성성한 증거가 이번에 발견된 항일 독립운동 사료입니다. 개인주의와 배금주의가 팽배한 우리시대의 천박한 정신세계에 경종을 울리는 백초월스님의 사리와도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백초월스님의 공훈을 기리어 198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고,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스님을 기억하고 선양해야 할 불교계에서는 아는 이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가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에 대한 불교계의 기여도를 확인하고 본받아 따르겠다는 다짐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랑스러운 선조를 올바르게 선양하지 못한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불교계의 항일 독립운동사를 올바로 정립하고, 우리시대 민족적 과제를 위해 불교계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세미나를 준비하신 진관사 주지 계호스님과 삼각산 역사문화보존회, 발제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세미나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53(2009)년 12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